

# 나이는 못 속여...이름값 믿다가 큰 코 다친다

‘동급 무적’ 이창재, 10월 최악 성적 김덕찬도 낙차사고 이후 부진의 늪 정준호·강대훈도 하반기 기량 급락

스포츠 선수들은 나이를 먹어 일정한 연령이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에이징 커브(Aging Curve)가 찾아온다. 경륜에서도 상반기까지 강자로 활약하던 선수들 중에 하반기에 들면서 기량이 급하락하는 선수들이 보이고 있다.

7월 등급 조정 때 선발급으로 강급된 이창재(10기, 39세)는 동급에서는 무적으로 폼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급 강급의 아픔을 맛봤지만 11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곧바로 특별승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급 후 첫 레이스인 부산 금요경주에서 추입승을 거둔 다음날부터 급변했다. 조동우의 몸싸움에 밀리며 착외해 쌍승 131.7배, 쌍복승 472.3배의 빌미를 제공하며 6착에 머물렀다. 명예 회복이 기대됐던 일요일경주에서도 3착에 그쳤고, 이후 비슷한 결과를 반복하며 하반기 15경기에서 5승에 머물렀다. 5승도 인지도도 앞세워 선행형 마크추입승을 거둔 것이 전부였으며, 화끈한 자력승부는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



벨로드롬을 역주하는 경륜 선수들. 상반기까지 강자로 활약하던 선수들 중 일부가 '에이징 커브'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반기 들어 기량이 급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제공 1 국민체육진흥공단

9월 12일 우측 대퇴부 화상을 입어 10월 18~20일 광명 출전에서는 6, 4, 6착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김덕찬(8기, 41세)도 이창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선발급으로 강급되기

전 마지막 경주였던 6월 21일 부산에서 낙차사고를 당했다. 인터뷰에서 가벼운 찰과상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으나 이후 4착, 2착, 결승 5착으로 부진했다. 다음 회차 창원급

요경주에서 추입승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다음날 다시 낙차의 불운을 겪었다. 이후 1승만 추가하며 지난해 이맘때 9연속 입상으로 특별승급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 14경기에서 2승에 그치고 있다.

1월 등급 조정 때 선발급으로 강급된 정준호(9기, 41세)는 상반기에 간간히 우승을 놓지거나 착외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2월 24일 창원 결승 우승을 포함해 8승을 챙기며 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강점인 추입력이 무너지며 8월 3일 마크추입승 이후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3착권 진입도 성공하지 못하는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강대훈(16기, 33세)도 5월까지 7승을 챙겼으나 이후에는 2승 추가에 만족하고 있다. 특유의 호쾌한 선행 짓하기 승부를 찾아볼 수 없고 8월 18일 마크추입승 이후 최근 2회차 6경기에서 2착 1회, 5착 1회, 7착 4회로 실망스런 모습이다.

예상치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최근 경륜은 부상 이후에 출전하거나 자력승부가 안되는 선수는 초주 줄서기부터 매물차게 냉대를 받고 있다. 옛 명성에 기대는 베테랑은 배당이 낮으면서 적중 확률도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광명 스피드 두바퀴 페스티벌’ 성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

는 광명시와 공동으로 2일 광명 스피드 야외광장에서 ‘광명 스피드 두바퀴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 광명 시민들과 함께 타는 자전거 라이딩, 스포츠·문화 공연, 스포츠 체험마당 등을 진행했다. 자선 바자회도 열었는데, 수익금은 전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190명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안전모를 전달했다.

## 경륜경정본부 건전레저 공동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0월 31일

과 11월 1일 서울 강남지점과 관악지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공동캠페인(사진)을 실시했다.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 문화 정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경륜경정총괄본부 희망길벗 소속 중독예방 상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도박 중독 자가진단테스트(CPGI)를 실시했다. 선별검사를 통해 1대1 중독예방상담, 건전구매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했다. 중독예방 및 치유 심리상담 희망자는 전화(경륜 080-646-5000, 경정 031-790-8888)와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정 1기 베테랑들의 미친 존재감

이태희, 현재까지 24승...톱10 랭크 곡현성·장영태도 나란히 17승 견제

경정 1기 선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착실하고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현재 1기생은 총 27명이다. 많은 선수들이 은퇴했지만 워낙 많은 인원을 선발한 까닭에 아직도 전체 기수 중에 가장 많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지만 심상철, 조성인, 김응선, 유석현, 서휘, 박원규 등 젊은 세대들이 미사리 경정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에서 1기 노장선수들의 주목도 자

체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기들 중에서 젊은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1기 최강자 이태희다. 11월 5일까지 24승, 스포츠경향배 대상 경정 준우승 등으로 다승(7위)과 상급(8위) 부문에서 1기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기복 없이 꾸준하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17승을 기록한 곡현성, 장영태도 1기 강자로 최근 존재감이 상당하다. 모터 성능에 따라 다소 성적 기록도 있지만 모터가 받쳐줄 때는 '이들 만큼 무서운 선수가 있



이태희 곡현성 장영태

정용진, 나병창은 슬럼프 탈출에 이은 극적인 부활로 주목받고 있다. 정용진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2016 시즌부터 매년 10승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전환기에도 이렇다고 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해 하반기에는 B1급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 하반기 성적만 놓고 본다면 심상철, 김종민 다음으로 성적이 높다. 스포츠경향배,

쿠리하라배 대상경주에서 연속으로 결승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쿠리하라배 결승에서의 플라잉이 이런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건이다.

나병창의 활약도 이에 못지않다. 경주 스타일 자체가 인상적이진 않지만 최근 10경주 입상률이 무려 80%로 1기 중 최고다.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기복이 심한 스타트로 인해 대부분 2착 입상이지만, 이를 보완한다면 앞으로 1착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상철, 김종민, 조성인, 김응선 등 정상급 선수들의 연이은 플라잉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경정 판도가 어떨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몇몇 고참 선수들의 분위기와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막판 주도권 쟁탈전이 한층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운 기자



## “건강한 토토 약속하고 경품도 받아주세요”

베트맨, 11월 건전구매 캠페인 실시 프로그램 참여시 자동으로 경품 응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11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스스로 지키는 건강한 토토생활!'(사진)을 실시한다.

건강한 베테랑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2명), 코베아 구이바다(5명), 나이키 힙팩(10명)을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



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베틀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토)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3일(화)에 공지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베트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구팬 56% “GS칼텍스, 현대건설 잡는다”

배구토토 스페셜 47회차 중간 집계 GS칼텍스 최종 세트 3-2 승 1순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6일(수) 열리는 도드람 2019-20 V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47회차 투표율을 중간집계한 결과, 여자부 GS칼텍스-현대건설(2경기)전에서 국내 배구팬의 56.34%가 홈팀 GS칼텍스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원정팀 현대건설의 승리 예상은 43.6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최종 세트스코어에서는 3-2 GS칼텍스 승리 예상(23.64%)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서는 3점차(27.35%)가 1순위로 집계됐다.

남자부 대한항공-우리카드(1경기)전에서도 홈팀인 대한항공의 승리 예상(55.34%)이 우리카드 승리 예상(44.66%)보다 근소한 우위를 차지했다. 세트스코어에서는 3-0 대한항공 승리 예상(21.06%)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세트 점수차의 경우 3점차(30.43%)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47회차 게임은 1경기 시작 10분 전인 6일(수) 오후 6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리미어12 대표팀 경기 대상 야구토토 매치 게임 연속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금주에 벌어지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한민국 조별 예선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매치 3회 회차를 연속으로 발매한다고 밝혔다.

야구토토 매치 게임은 1경기 두 팀의 홈런 유무(O,X)와 득점도 0~2, 3~4, 5~6, 7~8, 9~10, 11+(11개 이상)를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야구토토 매치 13회차는 오는 6일(수)에 펼쳐지는 대한민국(홈)-호주(원정)전을 대상으로 발매되며, 경기 시작 10분 전인 오후 6시 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지는 14회차는 7일(목)에 벌어지는 캐나다(홈)-한국(원정)전으로 야구팬을 찾아가며, 15회차는 8일(금)에 열리는 한국(홈)-쿠바(원정)전을 대상으로 발매된다. 위 세 경기는 모두 오후 7시 고척스카이돔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편집 1 고형기 기자 ico@donga.com